성심여고 영예의 대상 수상

전북은행 '2016 생생 樂 페스티발' 성료… 도내 고교밴드 8개팀 열띤 경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7회 '2016 생생 樂 페스티발'을 도내 고교밴드 팀들과 공연장을 가득 메운 2,000여명의 고교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생생 樂 페스티발'은 스승과 제자가 무대에 올라 끼와 재능을 펼치는 국내유일의 경연대회로,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전북은행에서 매년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예선을 통과한 8개 고교밴드와 교사가 함께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전주 성심여고가 영예의 대상을 전주 해성고가 최우수상, 완주고가 우수상, 정읍 배영고와 전주 전라고가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생생 樂 페스티발'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특히, 'JTV FM 장혜리의 행복발전소' 특집 공개방송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남성그룹 데이브레이크, 브로맨스, 걸그룹 에이프릴, 남성밴드 음담악설, 여성락밴드 워킹애프터유, 댄스그룹 영보스 등 인기가수들이 다수 출연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용택 은행장은 "전북 고교생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가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학교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참된 인성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어린이·유아용품전, 핑크퐁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떴다방과 불법전매 ·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근절

전북도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떴다방과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접수받는다.

신고 사안 중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분양권 다운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웨딩 박람회' 개최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오는 8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6층 이벤트홀에서 전주점 역대 최대 규모의 '롯데 웨딩 박람회'을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이날 예비 신혼부부들의 웨딩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가전, 가구 혼수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웨딩 박람회 기간 동안 가전/가구/해외명품/모피/주얼리/시계 등을 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5/10/15/25/50만원 롯데상품권 증정한다. 또 가구 단일 브랜드 100/200/300/500/1,000 구매 시에는 7.5%상당 7.5/15/22.5/37.5/75만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브랜드 별로 추가 사은품을 증정한다.

특히 이번행사는 1,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알찬 혼수용품 패키지를 준비, 실속파 예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으로 혼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전(삼성,LG)/가구(에이스,시모스)와 함께하는 혼수 특별 기획전에는 특가상품이 선보일 예정이고 소형 혼수 가전은 최대 50%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문중오 식품가정팀장은 "1년에 단 두번 진행하는 가장 큰 혼수 박람회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웨딩 트랜드에 맞는 웨딩 행사를 기획해 연중 가장 저렴하게 혼수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리우 쇼소식에 홈쇼핑도 새벽방송 매출 증가에 환호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업계가 새벽 방송 매출 증가에 환호하고 있다.

11일 CJ오쇼핑에 따르면 진종오 선수의 금메달 결정전과 축구 멕시코전이 진행된 이날 새벽 CJ오쇼핑의 주문량이 급증했다. 'LG 정수기 렌탈'의 주문량은 전주 보다 2배 증가했다. /뉴시스

농어촌공 유한식 감사 새만금현장 방문 시찰

새만금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점검을 위해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유한식 상임감사가 새만금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은 새만금 홍보관에서 유한식 감사에게 주요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새만금 가력풍력발전 시설 및 만경3공구 방수제사업현장, 농생명용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안내했다.

박종대 단장은 현황 설명에서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생명용지 5공구는 원예, 대규모농어업, 첨단농업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농생명용지의 함축판으로 내년에 준공된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한식 감사는 "차질없는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준공이후 새만금 유지관리와 공사경영 안정화를 위한 풍력사업 등 자체사업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 농어촌公, 찾아가는 영농 현장 모정 좌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정동환)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찾아가는 고객센터 모정좌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읍지사는 11일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읍시 응동면 오성리 일리마을(이장 한상구) 모정에서 농지은행사업홍보와 최근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농업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여름철 찾아가는 고객센터운영은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모정을 방문하여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등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함이 그 목적이다.

또한,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물 절약 등 물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곳이면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웅진 '탄산음료 815' 체험 캠페인

웅진식품의 탄산음료 브랜드 815가 제품 출시를 기념해 8월 한달 동안 대규모 소비자 체험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음용 기회를 부여해 815 브랜드의 재단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뛰어난 제품력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들은 8월 한 달간 다수의 축제 현장 및 핫플레이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뉴시스

하림, 여름 마무리할 보양식 레시피 공개

하림, 말복 앞두고 이색 삼계탕, 닭곰탕, 닭개장 등 색다른 요리법 소개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복날엔 삼계탕' 여름 더위에 지칠 때쯤이면 떠오르는 공식이다. 예로부터 닭은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만물을 깨울 정도로 양기가 충만한데다, 구하기가 쉬워서 서민들이 보양식으로 많이 활용해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양식의 끝판왕! 해물 삼계탕

- 재료: 하림 자연실록 통닭 1마리, 찹쌀 1/4컵, 인삼 1뿌리, 대추 5개, 마늘 8쪽, 은행 4개, 양파 1/2개, 대파 뿌리 2대, 대파(5cm) 1대, 홍고추 1/2개, 전복 2개, 낙지 1마리, 굵은 소금·밀가루 1큰술씩, 소금·후춧가루 약간, 생수 1리터
- 조리법: 닭은 꽁지의 기름기 많은 부분을 자르고 찬물에 씻어 핏물을 빼고 건져 물기를 닦는다. 찹쌀은 깨끗이 씻어 1시간 이상 불린 뒤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인삼은 노두 부분을 자른 뒤 씻어 물기를 닦는다. 대추는 주름 부분까지 구석구석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한다. 마늘과 은행은 껍질을 벗기고 양파는 큼직하게 4등분한다. 대파 뿌리는 깨끗이 씻고 대파는 송송 썬다. 손질한 닭의 배에 찹쌀, 인삼, 마늘, 은행을 넣는다. 냄비에 물을 붓고 양파와 대파 뿌리를 넣어 끓이다가 닭과 대추를 넣어 끓인다.

▲든든한 여름 보양식, 닭곰탕

- 재료: 하림 자연실록 통닭 1마리(600g), 물 1.6리터, 무 1/2개, 대파 2대, 황기 1뿌리, 대추 5개, 마늘 10쪽, 소금 2큰술, 후추 약간, 홍고추 약간
- 조리법: 닭은 깨끗이 손질한 뒤 끓는 물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한다. 무는 큼직하게 자르고 대파는 장식용으로 쓸 분량(1/4대)을 남겨두고 적당히 썬다. 장식용 대파는 어슷 썰어 따로 둔다. 냄비에 물을 붓고 손질한 닭을 넣은 뒤, 물, 대파, 황기, 대추, 마늘을 넣고 1시간 푹 끓인다. 그릇에 찢은 닭고기와 무, 장식용 대파와 홍고추를 담고 육수를 붓는다.

▲속이 확 풀리는 얼큰한 닭개장

- 육수 재료: 하림 자연실록 통닭 1마리, 대파, 양파, 통마늘
- 부 재료: 숙주 300g, 고사리 200g, 쪽파, 대파 1/2개, 홍고추 1개, 청고추 1개, 양파 1/2개
- 양념 재료: 고춧가루 4큰술, 다진마늘 2큰술, 국간장 4큰술, 고추기름 4큰술, 참기름 1/2큰술, 소금 약간
- 조리법: 손질한 닭을 냄비에 넣고 닭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은 뒤 대파와 양파, 통마늘을 넣고 푹 끓인다. 육수는 면보에 걸러 따로 둔다. 숙주와 고사리는 씻어서 살짝 데친다. 고추 기름을 살짝 끓인 후 고춧가루와 다진마늘, 국간장, 참기름을 넣고 볶듯이 버무려준다. 냄비에 쪽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모두 넣고 양념에 버무린다. 닭 삶은 육수를 부어 푹 끓인 후 마지막에 쪽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다.

/익산=장양원 기자